

지역 소식통

'정읍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시범 운영 성료

정읍시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특별한 놀이 공간을 선보였다. 시는 지난 11일 '정읍시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내 놀이창고에서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형 빅 블럭 놀이터'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미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정형화된 장난감에서 벗어나, 대형 블록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형 활동으로 기획됐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 운영은 아동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창의 놀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놀이창고 공간을 적극 활용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조립하고 설치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연말 의정 발전 유공자 9명 표창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1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보법적인 의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말 지역과 의정발전에 공을 세운 공무원 7명과 공무원 2명에게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했다.

민간인 부문에서는 나라의 정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단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섰던 공로로 부안촛불행동 소속 위원 7명(부안읍의 신권, 김성룡, 김단희, 변영배, 계화면 김병국, 주산면의 정윤양, 보안면의 최정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의 뜻을 담아 앞장서 행정하고 솔선수범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점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 번 수상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내년 국가예산 6383억 확보

전년 대비 9.9% '껑충' … 첨단과학·농축산·문화·관광 분야 중점 편성
이학수 시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모든 행정력 집중하겠다"

정읍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383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인 5807억원보다 약 9.9% 증가한 수치로, 첨단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국가 직접사업 2244억 1000만원과 시 직접사업 4139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듬고, 중앙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정읍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논리를 완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첨단과학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시는 △기초연구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에 2500억원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혁신

화 285억원 △정읍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 365억원 △전략기술 지역혁신 엔진 183억 2000만원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정읍시는 첨단기술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 예산도 일찍이 쟁겼다. △반려동물 기반 시설인 동물보호센터 설치 58억원 △2026년 열린 관광지 조성 15억원 △(구) 우체국 도심광장 조성사업 11억원 등을 확보해 시민 편익을 높인다. 또한 △국기유산 여행 사업 8억원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 7억원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태평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01억 5000만원 △감곡천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78억 8700만원 △북면 장구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47억 7300만원 등을 투입해 수질 오염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

원 40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9억 6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도 마련됐다. △광역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32억 750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5억 8000만원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36억 4000만원 등을 확보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2026년도 국가 예산 확보는 첨단과학, 농축산, 문화·관광, 기후·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하는 정읍의 미래를 그리며, 내년에도 정부의 역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부합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청사진 나왔다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동진강과 정읍천 일대에 생태·레저·문화 복합공간 조성 전략 공유



정읍시가 제21대 대통령 지역 공약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의 밀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구조조회의실에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동진강과 정읍천 일대를 생태·레저·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정읍시가 동진강과 정읍천 일원에 생태·레저·문화를 융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해 온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수변 생태축 복원을 기본으로 친수 문화 공간 조성과 레저·체육 기능 강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회복·재생 전략이 제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이 제안됐다.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주요 사업 계획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시설 확충에 방점을 뒀다.

우선 동진강과 정읍천이 만나는 합

류부에는 관광지원 거점형 문화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동진강 제방을 따라

반영해 용역 내용을 한층 더 보완하고 심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후 사업별 세부 실행 계획과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동진강과 정읍천이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인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 사업의 차원을 넘어 정읍의 수려한 자연과 문화,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재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방안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읍의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친수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김치산업 전문 설계자문단 첫 가동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고창군이 지난 1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건축 설계용역 척수보고회 및 제1차 설계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특히 김치산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한 김치산업 분야 전문가 5명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식이 함께 진행됐다.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은 대신면 산정리 일원에 총 320억원(국·도·군비 포함)을 투입해 저온저장시설, 절임·전처리 기공시설, 염수 재활용 시설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김치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화와 지역 농가·중소업체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절임배추공장동 배



동 건축 계획(안) 등 설계 초기 핵심 사항이 설명됐다.

참석자들은 생산·저장·가공·물류 동선의 효율성, 향후 운영 관리 체계, 친환경·스마트 설비 도입 가능성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위원들은 현장의 기술 경험과 산업 동향을 기반으로 시설 규모 및 배치 타당성, 절임·세척·냉장·포장 등 주요 설비 기능 등에 대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자치행정경영 문화관광' 부문 수상

TV조선 경영대상 주최, 세계문화 유산 중심 축제기획 등 호평

고창군이 지난 12일 2025 TV조선 경영대상에서 '자치행정경영 문화관광'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TV조선 경영대상은 TV조선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한다.

고창군의 이번 수상은 풍부한 세계 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확장한 축제기획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고창군은 올 한 해 '고창벚꽃축제'과 '정보리발축제', '복분자와 수박축제', '깻벌축제', '2025 세계유산축전', '제52회 고창모양성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시계절 내내 활력이 살아 있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 올가을 열린 제52회 고창 모양성제는 '고창愛 빠지다, 모양愛

들하다'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고창의 축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한 거리페레이드는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고창군의 대표 농촌관광인 '상하농원'이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며, 지역 기반 체류형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줄포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 가속화

국가예산 36억원 확보

부안군이 서해안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핵심사업인 '줄포만 갯벌 식생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 36억원(총사업비 51억원)을 확보해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ESG 행정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 36억 원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서해안 갯벌 친환경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ESG 행정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 36억 원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서해안 갯벌 친환경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ESG 행정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부안군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염생식물 군락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염생식물을 활용한 비건식품 개발 및 ESG 로컬투어 등 '부안형 ESG+N'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고 갯벌 생태 관광의 기회 제공으로 갯벌 보전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순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